

고린도전서 12장 21-26절 말씀

많은 지체-한 몸(1)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많은 지체-한 몸(2)

22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많은 지체-한 몸(3)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